



▷가정방문 수리봉사를 펼치고 있는 김병선(위)씨. 녹야원에서 화장실 벽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는 강숙원(아래)씨.

어두운 마음까지 수리해 드려요

요한 곳을 일일이 찾아 나섰지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환경개선과에 정식으로 자원봉사 등록을 마치면서 고민을 쉽게 해결하게 됐다. 수리가 필요한 복지관은 협의회와 연계해 보람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보람회원들은 각자의 일정을 살펴 봉사가 필요한 현장으로 늦지 않게 달려간다. 녹야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수십 개가 넘는 복지관에 그 같은 봉사행사를 벌여온 것이 벌써 10년이 가까워온다.

그런 만큼 일거리도 늘었다. 특히 자금지원이 적은 복지관을 입장에서는 모든 보수공사를 무상으로 척척 해결해주는 이들 봉

사 복지협의회 등록 후 작업 늘어 모든 보수공사 무상으로 척척

서로 직장당라 홀로 일 도맡기도

사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그래서 회원들은 방충망 설치와 문락 수리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부터, 장애인용 핸드레일 제작 설치나 전기수리 등의 복잡한 일까지 손대지 않는 일이 없다. 게다가 7명의 회원들의 직장 업무 일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홀로 떠난 한번의 출장에서 모든 수리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

“단순한 수리점검 요청이 들어와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살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한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김병선(33)씨는 복지관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의 수리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넉넉지 못한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년동안 봉사를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무주상보시를 체화한 이유가 크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낸다.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수도공사도 묵묵히 처리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와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번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수리를 도와드려니 그냥 보낼 수 없더라 손에 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봤더니 500원짜리 두 개더군요. 진심으로 건네는 건데 내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 무상의 철칙을 깨지나 꺼림칙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큼이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이용석(40)씨. 그는 여성마비 복지관의 수리봉사를 인연삼아 장애인들과 나들이도 자주 즐기고, 여성마비 복지회에서 마련하는 정기 캠프도 함께 떠나곤 한다. 외로운 동지를 수리하며 아빠의 온정과 손길을 심어준 덕에 그들과 함께 하는 일상도 곧 내 삶이 되어버렸다.

“사실 시설관리와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마다 한 명씩은 있을 텐데, 우리와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적습니다. 시작만 제대로 해주면 또 다른 보람회가 생기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요.”

요즘은 백화점 등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급자재들을 활용해 일할 수리봉사를 펼친다는 보람회원들. 또 다른 보람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는 죽는 날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하정음(70)씨의 발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강신재 기자 thswhy@buddhanews.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예세 왕모 라마 (F)

국면 깨닫는 ‘참된 본성’ 제시

“벗들이여, 근심하지 말라. 열심히 깊이 수행하라. 준비된 모든 존재에게 가르침을 베풀라. 기만과 자만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욕망을 마음의 강력한 불로써 태워버려라. 의식과 혼란을 없애라. 최고의 불법에 굳세게 매달려라. 뽀람이나 교만함 없이 남을 도와라. 발원과 명상과 실천에 의해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타베트 불교의 어머니 예세 초갈의 가르침)



▷예세 왕모 라마.

8세기경 티베트의 위대한 여 스승 예세 초갈의 구도와 깨달음을 흠모한 예세 왕모 라마(Lama Yeshe Wangmo, 美 '지혜의 축복/Uhansakhal') 재단 이사장은, 그가 죽음을 무릅쓰며 보여준 밀교 수행법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 재단이 예세 초갈을 위해 설립한 8가지의 영적, 육체적 수행법은 티베트

중해 관찰하는 수행이다. 여섯째는 설법의 수련, 즉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적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깊은 이해로써 체계적이고도 순서대로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을 쓸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은 터득하는 것

이다. 일곱째는 남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덟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무한한 자비행이다. 이 수련에서는 자신의 원수를 아들처럼 여기고, 금을 돌처럼 생각하여 준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세 왕모 라마는 이의와함께,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깨닫는 ‘참된 본성’이란 거울도 제시했다.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비전과 실현정신은 ‘깨달음에 대한 여덟 가지의 거울’이란 모델로 압축된다. 이것들은 원천적인 발원, 의

‘깨달음에 대한 여덟가지 거울’로 비전

토론위주 워크샵 성격 띤 수행법 특징

밀교의 독특한 비전을 담고 있다.

그 중에 첫번째는 금식 수련, 즉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평정을 얻는다. 두번째는 의복의 수련, 즉 옷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옷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셋째는 언어의 수련이다. 이는 만트라(진언)를 외우고 쓸데없는 잡담을 버리는 것이다. 서로 화합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만트라를 외우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묵언하며 수행한다. 이는 지혜로운 자의 표시로서, 여러적용의 증표는 쉬지 않고 떠드는 것이다. 넷째는 육체의 수련, 오체부지를 행하고 연화좌로 앉는 것이다. 반드시 연화좌를 익힐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가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듀알 컬 대사의 호흡법과 자세는 필수적이다. 다섯째는 마음의 수련인 명상이다. 하나의 정신적, 물질적 대상에 마음을 집

식의 발원, 외적인 깨달음, 내적인 각성, 동체대비, 깨달음, 성취, 인격의 완성 등이다. 이러한 거울들은 맑고 명확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동시에 우리의 참된 주인공인 ‘거룩한 공(佛)’을 탐구하며 심리적 자아의 상실을 조사하며, 영적인 삶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왕모 라마의 수행법은 주로 워크샵의 성격 띤 경우가 많은데, 참석자들은 마음을 연 토론을 통해 창조적, 영적인 영감을 받는다. 물론 맑게 마음을 열고 지혜를 드러내며, 우리 안과 밖의 존재를 기술적으로 맞닥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적절한 지도, 화평한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수련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고귀한 삶의 예술을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씨앗을 뿌린다. 그는 이러한 수련회를 ‘현존에 대한 사랑(Loving Presence)’ 워크숍이라고 부른다.

김재경 기자

바라밀현장

보람회, 녹야원 '주택환경개선 봉사'

“하는 일이에요? 대중없습니다. 주택의 보수와 수리에 관한 것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주택 환경개선 봉사를 펼치고 있는 보람회(회장 이용석)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정해

진 봉사 일정이 없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면 그것이 곧 이들의 일거리가 된다. 그렇다고 보람회원에게 헌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것이 ‘직장일’이고 어떤 것이 ‘자원봉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뿐이다.

주택개량 및 수리·관리 작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람회. 의사가 무료진료를 펴고 미용사가 무료이발 활동을 벌이듯, 이들은 주택과 관련한 무료 보수·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

자비신행회

“신행·복지 우리가 책임진다”



▷11일 개소식 '사찰음식 나눔축제'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부대중이 사찰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과 복지를 위한 쉽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신행회(회장 이화영)가 10월 11일 광주 내남동 옛 지원초등학교 터에 ‘한끗 외국인노동자 쉽터’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체험 행사 등을 마련한 자비신행회 지역복지 활

자비신행회 '이주노동자 쉽터' 개소

언어교육등 지원교류사업 확장 계획

동여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비신행회 활동의 초점은 불교에 기반한 한국문화에 알리는 것. 이를 위해 신행회는 네발 및 중국인 노동자들과 사찰답사를 추진하기도 했고, 대학생 봉사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불교와 한국문화 소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번 쉽터의 건립은 이 같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김영실 사무국장은 “한끗 외국인노동자 쉽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체험 및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지원교류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수행과 보살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운데 상담·의료·생활 지원사업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비신행회는 99년 창립된 이래 독거노인 밀반찬 준비, 명상교실, 불교 경전 강의, 호스피스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말에는 하남공단에 쉽터분소를 열 예정이다. (062)234-2732

강신재 기자 ·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기 장흥 대원정사 '산신님·코끼리 삼존불 점안 법회'



[주지 애련 함장]

산신제(山神祭)는 우리민족의 태초부터 무(巫)유(儒)불(佛)의 의례로 면면히 계승되어온 전통 의식이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산신님께 제를 올리며, 불보살님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경기 장흥 석현리 돌고개 앵무봉에서 산신제(山神祭)를 봉행함으로써 본 사찰의 도량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여러 불보살님의 가내(家內)에 만복이 깃들고 업장소멸과 사업 성취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원 합니다. 불보살님들의 家內 행복을 기원하오며 수회 동참으로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신님 및 코끼리 삼존불 점안법회 안내

- ◆ 일시: 불기2547(2003)년 11월 2일(음력 10월 9일) 오전 11시
 - ◆ 장소: 대원정사 노천 산신불전
 - ◆ 산신 공덕비 동참: 1인 10만원
 - ◆ 오시는 길 1. 서툼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 2. 자가용: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 대원정사
 - 3. 부산차량: 11월 1일 지하철 사상역(오후 10시 30분) 온천차역(오후 11시) 출발
- 오륙도 관광버스(연락처 016-9331-149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大圓賞)

제1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불교단체를 선정,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호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불교포교부문 - 개인 1인: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불교포교부문 - 단체 1곳: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 각 부문 개인 및 단체 수상자는 이전 3년 동안에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제1회 의 경우 2001년 - 2003년도).
- 해당 부문과 관련한 향후 활동 계획을 참고합니다.
- 수상자는 개인 1인과 단체 1곳으로 하며, 동일 부문에서 업적에 대한 우열 판정이 어려운 우수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혹은 단체 후보자중 일정 자격수준 혹은 수상 공적이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교계 저명인사들로 '대원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할 것입니다.
- 불교 관련 단체, 기관 대표, 본발사주지스님의 추천서(양식).
- 해당 부문 활동 공적서(양식).
- 주요 경력 및 이력서(양식).
-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www.kbpf.org)
- 접수 기간: 2003년 10월 15일 - 11월 15일.
- 접수 및 문의처: 본 원 사무국.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02)719-1855, 2606
 - 홈페이지: www.kbpf.org / e-mail: kbpf@kbpf.org
-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차 소인 유휴).
- 시상식 - 2003년 12월 17일(수) 14:00.
- 시상 장소 - 다보빌딩 3층 대법당.

불기 2547년 10월 일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T. (02)719-1855/HP:www.kbpf.org